

학령후기의 의도적 통제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기술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와 성차*

김 재 희¹⁾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김 현 경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학령기 4학년 시기의 의도적 통제가 2년 후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409명의 부모(1차 시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2년 뒤에 1학년도 대상 중 239명의 아동(2차년도)을 대상으로 추후 조사하여 총 397명의 단기 종단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Mplus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SEM)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4학년 때 의도적 통제는 2년 뒤 6학년 때의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같은 시기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2년 뒤의 높은 사회적 기술을 예측하였고, 이는 낮은 우울 수준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2년 뒤의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증가될 수 있는 주요 적응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종단적 관계로 밝혔으며, 성에 따른 다른 양상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우울과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 방식, 심리적 부적응, 성차

* 본 연구는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E-mail: jaehee7750@hanmail.net)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I. 서 론

학령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는 점차 학교맥락을 중심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집중된다(La Greca & Harrison, 2005).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의 괴롭힘이나 또래와의 갈등은 극심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주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분노와 좌절은 공격 행동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한다(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La Greca & Harrison, 2005).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고,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은 가출, 자살 시도 등의 극심한 문제행동과 깊은 관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기의 우울과 비행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단적 관계로 분석한 이주영과 오경자(2010, 2011)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비행은 공존하여 함께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령기 고학년의 후기 아동기의 우울은 청소년기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우울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등 교차지연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이렇듯, 후기 아동기의 심리적 부적응은 이후 시기의 청소년 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후기에 발생하는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요인과 기저요인 등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로 분노나 좌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많으나 모두 같은 수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즉, 유사한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잘 극복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는 청소년도 나타난다(Derryberry, Reed, & Pilkenton, 2003). 이러한 개인차가 나타나는 것은 아동이 지닌 탄력성이나 취약성에 의해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완화되기도 하고 혹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 예로, 청소년(만12세-15세)의 정서조절능력이 우울과 문제행동의 관계하는지를 조사한 선행연구(Silk, Steinberg, & Mooris, 2003)에 의하면,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청소년이 지닌 정서조절 능력이나 스트레스 대처 전략 등이 우울과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심리 부적응 문제라 할 수 있는 우울과 공격성을 더욱 악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선행변인들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기를 앞둔 학령 후기 아동의 개인이 가진 특성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 중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과 사회적 기술이 있다. 우선, Segrin(2000)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낮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저해하고, 의사소통의 기회가 낮아져 긍정적 경험이 강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지고 결국 우울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은 공격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Frey, Hirschstein, & Guzzo, 2000).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대부분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서 공격행동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Frey et al., 2000).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은 일상에서 지속되는 행동패턴을 형성하는 메카니즘으로 이후 시기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미한 장기 영향을 미치게 된다(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 Wadsworth, 2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Eisenberg, Fabes와 Guthrie(1997)는 문제-초점 대처, 정서-초점 대처와 정서에 치우친 행동 대처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Compas 등(2001)은 문제 초점 대처와 참여 적 대처, 정서 초점 대처와 비참여 대처 등으로 구분하여 비참여 대처와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대처를 할수록 심리적 부적응과 관계를 보고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의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들(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에서는 문제해결, 인지적 거리두기, 문제해결, 사회적지지 찾기, 감정의 표출화, 감정의 내면화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도 김정민(2004)이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유형을 인지적 거리두기, 성인의 지지 찾기, 또래의 지지 찾기, 부정적 문제해결, 긍정적 문제해결,

감정의 내재화, 감정의 표출화 등으로 보고하였다. 고학년일수록 부정적 문제해결 대처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성인지지 찾기 대처 방식은 줄어들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간혹 조사된 연구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내의 중국, 인도, 한국, 타이완과 홍콩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Wei, Ku, Russell, Mallinckrodt, & Liao, 2008)에서 인종차별을 지각했을 때 억제된 부정적 스트레스 전략을 사용할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상황에서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외현화적 표출이나 보복행동 등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공격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chenderfer-Ladd & Skinner, 2002; Sandstrom, 2004). 이에,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우울이나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우울과 공격성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술과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더 촉진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은 두려움, 분노, 슬픔, 근심 등 다양한 정서를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있어서 정서 조절적 기질

인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Ayers, Sandler, West, & Roosa, 1996; Rothbart & Posner, 2006).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개념인 의도적 통제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적(reactive control)으로 발생하는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혹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합한 반응을 자발적으로 조절하는데 작동되는 능력이다(Zhou et al., 2007).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비추어볼 때, 의도적 통제는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실행되는 내적 능력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실제 선행연구들에서(Ayers et al., 1996; Compas et al., 2001; Derryberry et al., 2003)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하는 등의 인지적인 통제 대처 방식과 관계했고, 스트레스 해결에 대해 접근 지향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관계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높은 수준의 통제적 조절 능력은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 상황에서 인지적인 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며, 이해를 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게 한다(Lengua & Long, 2002).

또한, 의도적 통제는 사회 맥락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규범대로 행동하도록 정서를 자발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므로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이는 아동은 높은 사회적 기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영경, 이영, 2012; 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이와 같이 의도적 통제는 정서 관련 조절 능력을 활성화하는데 작동되는 개인의 특성으로 사회적 기술과 함께 스트레스 상황에

서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대처능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도적 통제는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이나 공격적인 행동의 감소를 돕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능력이나 내적통제능력 등은 우울이나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우채영, 김판희, 2011; 임미지, 문혁준, 2014; 최운정, 이시영, 2006). 의도적 통제는 자기조절능력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울이나 공격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 12세부터 15세의 청소년을 대상의 연구(Verstraeten, Vasey, Raes, & Bijttebier, 2009)에서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세와 관계했고, 부정적인 정서 등 타고난 기질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도 의도적 통제가 높은 집단일 경우에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만 8-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도적 통제와 불안, 우울과 공격성 등과 같은 정신 병리적 증상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의도적 통제가 낮을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uris, van der Pennen, Sigmond, & Mayer, 2008).

한편,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 전략 유형, 우울과 공격행동 등의 각각의 변인들은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기술은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Kochanska & Knaack, 2003). 또한, 우울은 전반적으로 여아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 행동은 여아보다 남아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등, 2007). 또한,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대처와 부정적 문

제 해결 대처는 남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 2005). 기존에 이러한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성차에 대해 보고된 바는 드물지만 위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남녀 성차를 예측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의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의 의도적 통제가 2년 이후인 6학년 시기의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행동을 통해서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한다. 즉, 우울과 공격 행동을 예측하는 기저요인과 취약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단자료들을 이용하는 이론 모형을 구축하여 그 적합도를 알아보고, 구축된 모형에 대한 성차를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의 관계와 이에 대한 성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령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술 및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과 공격 행동에 중단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학령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술,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연구대상

본 연구자료는 무작위로 선정한 서울·경기 지역 초등학교 5군데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 409명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한 1차년도 자료(2012년, T1)와 이들이 6학년이 된 시점에 1차 연구대상 중 추후 조사를 허가한 두 군데의 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동 239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자료(2014년, T2)를 수집하여 중단 자료로 확장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T1)와 2차년도(T2)의 자료 중 ID만 부여되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1차년도(T1)의 자료는 있고, 2차년도(T2)의 자료는 없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 총 397명(T1 = 359명, T2 = 213명)이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1차년도(T1), 2차년도(T2)의 자료가 있는 경우만 사용하는 결측치 처리방법(listwise deletion missing)을 하지 않고, 결측치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중단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며 예측치가 편향(biased)될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였다(Peugh & Enders, 2004).

연구대상 아동(남아, 41.1%)의 경우, 평균 연령은 1차년도(T1)에는 10.43세($SD = 3.65$), 2차 시점(T2)에는 12.38세($SD = 13.18$)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평균 41.7세($SD = 2.97$, range = 31~53), 아버지는 평균 44.36세($SD = 3.34$, range = 37~57)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 보고된 대상 가족의 월수입은 전체의 약 80.7%가 월수입 500만원 이상(500만원~800만원: 약 45%, $M = 732.37$, $SD = 570.22$)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약 77%가 대학졸업 이상이고, 과반수(58.1%)가 전업주부였고, 약 26.9%가 회

II. 연구방법

사원이거나 전문직이었다. 아버지는 약 86.6%가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으로 회사원, 공무원, 은행원 등이 39.1%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과 고위직이 그 다음 순(35%)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6학년 시점(T2)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 161명과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평균아동의 연령(단위, 년)($M = 10.43$, $SD = 3.44$), 어머니의 평균연령($M = 41.80$, $SD = 3.10$), 아버지의 평균연령($M = 44.30$, $SD = 3.51$), 가정 수입(단위, 만 원)($M = 774.09$, $SD = 467.36$), 어머니 교육수준(74.5%가 대학교 졸업 이상), 아버지 교육수준(81.9%가 대학교 졸업 이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확인되었다($t_s = -.27 \sim .69$, $p > .05$).

2. 측정 도구

4학년 1차년도 시점(T1)의 측정도구

아동의 의도적 통제. 연구대상이 4학년인 1차년도(T1)에 조사된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학령기 아동의 기질 척도인 TMCQ(Temperament in Middle Childhoo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 보고가 가능한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Spinrad et al., 2006)에서 아동보고와 부모보고 중 부모가 보고한 경우 TMCQ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아동의 주의력 집중(attention focusing) 7문항과 억제 통제(inhibitory control) 8문항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을 보고하였다(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주의

집중은 주의가 필요한 일이나 과제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수업시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쓸 때 산만해진다(역코드).’ 등이 그 문항의 예이다(Spinrad et al., 2006). 억제 통제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문항에는 ‘하던 일을 아주 빠르게 멈출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주의 집중과 억제 통제는 특히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계가 나타나는 의도적 통제의 중심 구성요인으로 밝혀졌다(Geng, Hu, Wang, & Chen, 2011; Zhou et al., 2007). 모든 문항들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하위요인별 평균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아버지 보고가 .91, 어머니 보고는 .89로 나타났다.

6학년 2차년도 시점(T2)의 측정도구

아동의 사회적 기술. 연구대상이 6학년 시점(T2)에 조사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은 Gresham(1998)이 개발한 SSRS(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아동용(3-6학년용) 척도를 번역, 역 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아동이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또래 관계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지, 협조하는 자세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을 묻는 34문항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회적 기술 점수로 사용하였

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78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연구대상이 6학년 시점(T2)에 조사된 아동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Causey와 Dubow (1992)의 학업과 또래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 중 김정민(2004)이 요인분석하여 구분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스트레스 방식의 유형 척도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7가지 유형 중에서 부정적 문제해결과 감정의 표출화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문제 해결 전략 유형은 문제 해결의 시도가 사회적 규준(norm)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그 문항의 예는 '나를 괴롭힌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할 것이다.'가 포함된다. 감정의 표출화 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부정적 감정들을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대상이나 사물 등 외부로 표출시키려는 행동을 의미하며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문항의 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언가를 때릴 것이다.'이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문항으로 조사되었고,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문항 간 내적 합치도는 부정적 문제 해결 대처 전략은 .86, 감정 표출화 대처전략은 .80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 연구대상이 6학년 시점(T2)에 조사된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은 크게 우울과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기 보고하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인 K-YSR(Korean Youth Self Report)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YSR은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과 홍강의(2001)가 Achenbach(1991)의 미국판 YSR을 번역 및 표준화한 도구이다. 본 척도는 청소년의 자기 보고식 검사로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표준점수 T점수가 제시되어 있지만, 본인의 행동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초등 고학년의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오경자, 김영아, 2010)에 따라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본 연구대상인 6학년 아동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K-YSR의 문제행동 척도 중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걱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불안한 것과 관련된 문항을 묻는 불안/우울의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공격성은 K-YSR의 문제행동증후군 척도 중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전반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묻는 17문항의 공격행동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문항은 3점 척도(0-2점)로 조사되었고, 문항 간의 내적합치도가 불안/우울은 .85, 공격 행동은 .84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PASW 18.0(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과 Mplus 7.4(Muthén & Muthén, 1998-20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빈도와 백분율,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와 조사하고자 한 아동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또래 괴롭힘에 대한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과 공격행동 등의 전체 아동과 남아·여아 각각의 평균과 표준

오차, 남녀의 t -test, 상관관계를 PASW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매개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남녀에 따른 성차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중집단 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지표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송태민, 김계수, 2012). 구조방정식에서 검증된 변인간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T1~T2에서 9.6~46.3% 범위 내에서 나타난 변인들의 결측치는 결측치에 대해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불편추정치(unbiased estimates)를 제공하는 Mplus의 default 기능인 완전정보 최대추정치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 FIML)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결측치 있는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여 사용하는 listwise 결측치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편향되지 않은 최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III.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아동의 의도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또는 사

회적 기술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업성적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을 조사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각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1차년도(T1) 시점의 아동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부정적 문제해결 대처와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2차 시점의 사회적 기술은 우울과 공격 행동에 부적 관계가 나타났으며, 부정적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우울과 공격성 모두와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 감정표출 대처방식은 공격 행동에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검증하려는 구조모형의 남녀 집단 간 차이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비교 t -test를 실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변인들의 평균 점수는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우울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 = -2.54 \sim -4.12$, $p < .05$, .01, .001), 공격 행동만이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t = 1.93$, $p < .05$). 변인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남아의 경우에는 감정 표출화 대처 방식이 우울과 공격 행동에 정적 상관은 각각 $r = .21$, $p < .05$, $r = .30$, $p < .01$ 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아는 부정적 문제해결 대처가 우울과 공격 행동에 정적 상관은 $r = .21$, $p < .05$, $r = .34$, $p < .001$ 로 나타났다. 또한, 여아의 경우 감정 표출화 대처 방식도

표 1. 전체 아동의 T1의 의도적 통제, T2의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397$)

	1	2	3	4	5	6	7
1. T1 아동 EC(모 보고)							
2. T1 아동 EC(부 보고)	.60***						
3. T2 아동 SS	.16***	.21**					
4. T2 아동 부적응적 문제해결 대처	-.15*	-.07	-.09				
5. T2 아동 감정 표출화 대처	-.12	-.06	-.06***	.27***			
6. T2 아동 불안/우울	-.09	-.04	-.26***	.17*	.12		
7. T2 아동 공격행동	-.24**	-.19*	-.24***	.28***	.23**	.51***	
<i>M</i>	3.78	3.54	2.93	2.12	1.81	6.00	7.50
<i>SD</i>	.58	.60	.31	.78	.78	4.92	5.40

주. EC: effortful control(의도적 통제), SS: social skills(사회적 기술)

* $p < .05$. ** $p < .01$. *** $p < .001$.

표 2. 남아·여아의 T1의 의도적 통제, T2의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397$)

	남아		여아		<i>t</i>
	(T1 $n = 163$, T2 $n = 96$)		(T1 $n = 196$, T2 $n = 117$)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1 아동 EC(모 보고)	3.64	.58	3.89	.56	-4.12***
T1 아동 EC(부 보고)	3.42	.61	3.64	.58	-3.37***
T2 아동 SS	2.87	.31	2.98	.30	-2.75**
T2 아동 부적응적 문제해결 대처	2.18	.81	2.10	.76	.91
T2 아동 감정 표출화 대처	1.74	.76	1.86	.80	.63
T2 아동 불안/우울	5.06	4.38	6.76	5.22	-2.54*
T2 아동 공격행동	8.28	5.77	6.86	5.01	1.93*

주. EC: effortful control(의도적 통제), SS: social skills(사회적 기술)

* $p < .05$. ** $p < .01$. *** $p < .001$.

공격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0$, $p < .05$). 대체적으로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와 2차 년도의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는 남아와 여아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남아·여아의 T1의 의도적 통제, T2의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397$)

	1	2	3	4	5	6	7
1. T1 아동 EC(모 보고)		.56***	.06	-.14	-.15	-.16	-.10
2. T1 아동 EC(부 보고)	.61***		.08	-.07	-.05	-.07	-.03
3. T2 아동 SS	.21	.30**		-.00	.01	-.29**	-.23*
4. T2 아동 부적응적 문제해결 대처	-.16	-.07	-.16		.21*	.21*	.34***
5. T2 아동 감정 표출화 대처	-.15	-.12*	-.18	.36**		.05	.20*
6. T2 아동 불안/우울	-.12	-.09*	-.34**	.14	.21*		.50***
7. T2 아동 공격행동	-.36**	-.32**	-.21*	.16	.30**	.61***	

주. 대각선 아래는 남아, 대각선 위는 여아의 상관관계임

* $p < .05$. ** $p < .01$. *** $p < .001$.

2. 구조모형 검증

연구대상이 4학년인 1차년도(T1) 시점의 의도적 통제가 6학년이 된 2차년도(T2) 시점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매개로 같은 시점의 우울과 공격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개발하였다. 최근 측정모형 분석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선호하는 연구동향에 따라 (Schreiber, Nora, Stage, Barlow, & King, 2006)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간략히 보고하자면, 모형의 모든 변인들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8) = 9.63$, $p > .93$, RMSEA = .02(90% CI = .00~.02), SRMR = .04, TLI = .96, CFI = .99). 또한, 모든 변인은 왜도와 첨도가 각각 절대값 1과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임을 확인하였고,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 문제 2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조모

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대한 χ^2 검증은 $\chi^2(7) = 2.42$ ($p > .93$)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RMSEA는 .00(90% CI = .00~.02), SRMR은 .01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의 기준인 .05와 .08보다 작았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각각 1.00, 1.05로 적합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다(Hu & Bentler, 1999).

검증된 구조모형의 유의미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beta = .24$, $p < .01$)과 2차년도(T2)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beta = -.26$, $p < .05$)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T1)의 사회적 기술은 2차년도(T2)의 우울($\beta = -.24$, $p < .01$), 공격 행동($\beta = -.15$, $p < .05$)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유의미한 경로를 통해서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가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을 거쳐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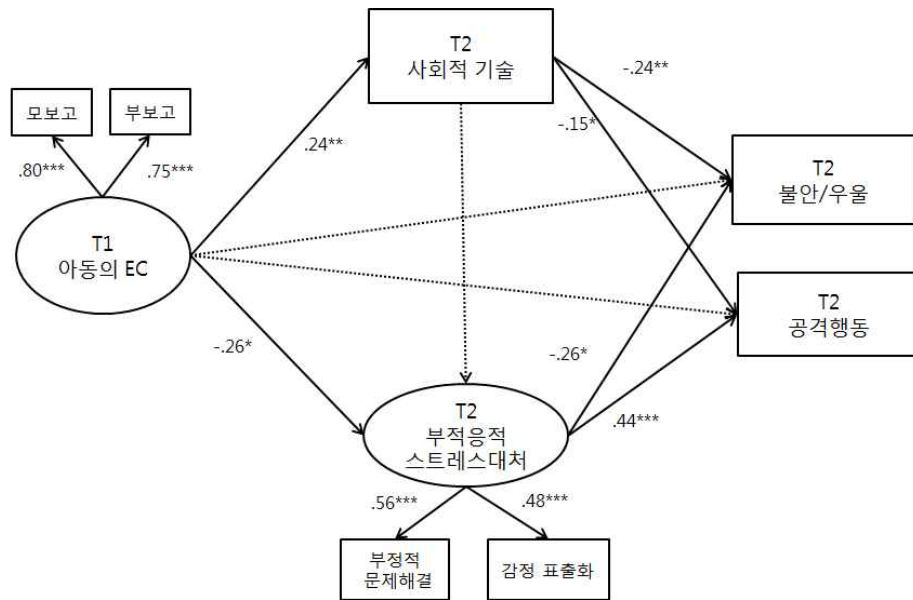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부정응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주. $N = 371$, EC: 의도적 통제, 실선: 유의미한 경로, 점선: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1$. *** $p < .001$.

시점인 2차년도(T2)의 우울과 공격행동에 미치는 매개 효과와 1차년도(T1) 시점의 의도적 통제가 2차년도(T2)의 부정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거쳐 2차년도(T2) 시점의 우울과 공격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신뢰도 구간(bootstrapped confidence interval)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2년 뒤의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같은 시기의 우울($\beta = -.62$, 95% CI [-.13, -.01])과 공격 행동($\beta = -.42$, 95% CI [-.10, -.01])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도(T2)의 부정응적 대처 방식을 통해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beta = -.72$, 95% CI [-.28, -.01])와 공격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beta = -1.32$, 95% CI [-.40, -.02])가 확인

되었다.

3. 구조모형의 남녀 차이 검증

검증된 구조모형과 모형에서 나타난 변인 간 유의미한 경로가 남아와 여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측정 변인들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남녀 집단에 대한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측정 모형의 잠재변인에 걸리는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모형과 자유모형의 χ^2 값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 는 자유도 1일 때 0.31로 임계치($\chi^2 = 3.84$)보다 작아 남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남녀를 모두 동일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본 구조모형에 대한 모든 경로에 제약을 두지 않았을 때 남아와 여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자유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 모형의 적합도는 $\chi^2(18) = 10.99$, $p > .05$, CFI = 1.00, TLI = 1.06, RMSEA = .00(90% CI = .00 - .03), SRMR = .0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유모형으로 살펴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의 유의미한 경로 중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난 계수들을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들을 분석하였다. 즉,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 →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 → 2차년도(T2)의 공격 행동,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 → 2차년도(T2)의 공격 행동,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을 하였다. 또한, 기초분석에서

남녀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아동의 의도적 통제 점수, 우울과 공격 행동을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하였다. 그 결과,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의 χ^2 차이는 자유도 6일 때 17.39로 임계치($\chi^2 = 13.59$)보다 크게 나타나 구조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구조모형은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남아집단의 경우,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는 2차년도(T2)의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7$, $p < .05$). 1차년도(T1)의 의도적 통제가 2차년도(T2)의 사회적 기술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67$,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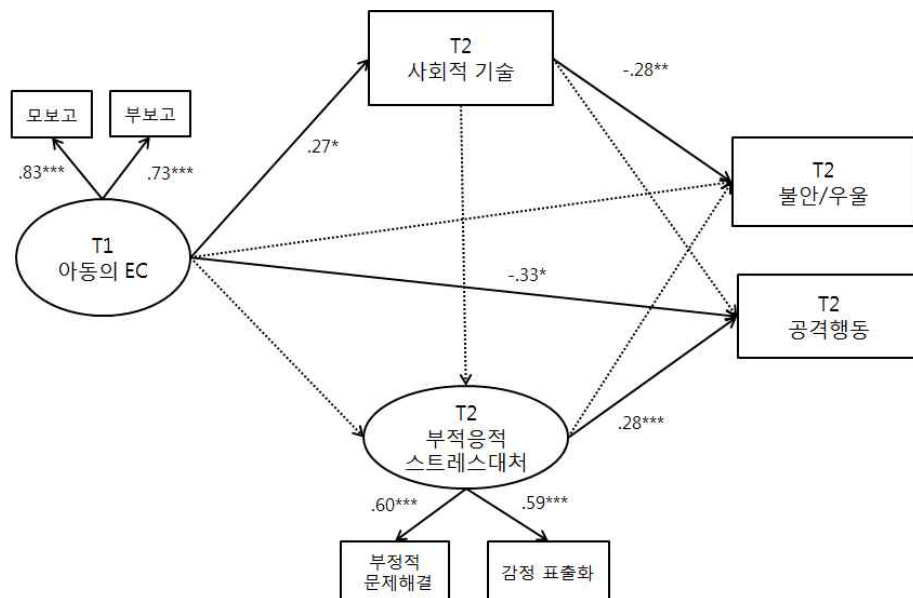


그림 2. 남아 집단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부정응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및 공격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주. $N = 371$, EC = 의도적 통제, 실선: 유의미한 경로, 점선: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1$. *** $p < .001$.

적 기술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행동은 낮았고,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과 공격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고려한 전체 아동 집단의 경우, 4학년 때 의도적 통제 능력이 높은 아동은 2년 이후인 6학년 때 높은 사회적 기술을 보였고,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공격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학년 때 의도적 통제가 낮은 아동은 2년 이후에 부정적인 문제 해결을 하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았고, 이는 같은 시기의 우울과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때의 의도적 통제는 6학년 때의 우울이나 공격행동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셋째, 위에서 살펴본 의도적 통제, 사회적 기술,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우울과 공격 행동 간의 관계는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 집단의 경우에 4학년 때 의도적 통제가 높을수록 2년 후에 공격 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우울을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4학년 시기의 의도적 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아의 공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 집단의 경우에는 4학년 때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6학년 때의 낮은 부적응적 대처 방

식을 예측하고, 공격 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 집단에서 사회적 기술은 2년 전의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6학년 시기의 사회적 기술이 같은 시기의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에는 낮은 의도적 통제 능력이나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공격 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더 잘 적응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외적으로 덜 드러낸다는 기존연구들과 일치한다(Eisenberg et al., 2005; Kochanska & Knaack, 2003). 본 연구에서 의도적 통제의 공격행동에 대한 직접효과는 남아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가 내재화된 행동문제보다는 낮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더 강하게 관계하였다. 특히, 남아들이 여아에 비해서 충동성이 높고, 행동조절 능력이 여아보다 안정적으로 발달되는 궤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남아의 경우 어린 시기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는 연령이 지나서까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Eisenberg et al., 2001)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자신의 공격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에서 여아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4학년 때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를 보인 남아는 6학년 때 지속적인 행동조절이 나타나서 낮은 수준의 공격 행동을 보이게 되는 그 관계성이 여아보다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남아 개인이 가진 의도적 통제 능력 수준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남아의 6학년 시기의 부적응적 대처 방식은 같은 시기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출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그 행동이 강화되고 사회화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습화 되었거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동적인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는 타고난 성향에 의해서 빈번히 분노를 표출하고, 부정적으로 대처하여 공격적 행동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남아의 경우에 공격행동을 높이는 위험요인은 높은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의 의도적 통제가 우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도적 통제의 영향 없이 6학년 시기의 사회적 기술이 같은 시기의 우울을 예측한 여아와는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여아나 남아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래관계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만족스러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져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Segrin, 2000). 그런데, 남아의 경우에는 의도적 통제가 사회적 기술을 높여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아에 비해서 사회적 기술 발달이 떨어지고, 어린 시기부터 사회 행동 기술 습득 수준이 뒤떨어진 채 학교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Diprete & Jennings, 2012) 남아 개인이 갖는 의도적 통제 능력의 정도가

사회적 기술 발달 여부에 중요한 역할(문영경, 이영, 2012)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울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 우울과 공격 행동은 사회적 기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도적 통제는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수 있고, 우울과 공격 행동 등의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아의 경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의 대처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Matud, 2003)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겠다. 여아가 부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 하지 않도록 돕는 요인으로는 정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의도적 통제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서 공격행동 점수가 낮지만, 의도적 통제가 낮은 경우에는 생활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여아 특성(Matud, 2003)으로 더욱 부적응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게 되는 횟수가 증가되고, 이에 공격행동이 증가되는 메카니즘이 두드러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남아의 우울이나 공격행동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통제를 높이고,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아에게는 의도적 통제와 사회적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의도적 통제는 이후 시기의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저요인이며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녀 간에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을 일반화하기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비교적 중상층 위주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뿐만 아니라 다른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각각의 메카니즘을 구분하여 조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의도적 통제 변인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변인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청소년기를 앞둔 고학년 학령기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성들의 관계구조를 밝히는 조사를 했으며, 2년 동안 2차례 조사를 통한 단기 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횡단적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 둘째, 비교적 자료의 사례수가 크고 남녀 집단의 수가 비슷해서 성차를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기술과 부적응적 스트레스 대처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우울과 공격행동의 발달영역에 고유한 원인 경로를 밝히고, 남녀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남녀의 발달경로를 고려한 예방 프로그램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한, 조아미, 이승하, 변해진 (2013).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 과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정민 (2005). 또래집단괴롭힘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 아동의 대처전략 유형들과 그에 따른 외로움의 완화효과. 아동학회지, 26(2), 193-207.
- 문연경, 이영 (2012).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0(1), 103-119.
- 송태민, 김계수 (2012). 보건복지연구를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우채영, 김판희 (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 이주영, 오경자 (2010). 청소년기 우울-비행 공존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성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53-72.
- 이주영, 오경자 (2011).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의 시간적 발달 관계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

- 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97-518.
- 임미지, 문혁준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최윤정, 이시연 (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21, 89-113.
- Achenbach, T. M. (1991).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yers, T. S., Sandler, I. N., West, S. G., & Roosa, M. W. (1996).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64(4), 923-958.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E.,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68.
- Causey, D. L., & Dubow, E. F. (1992). Development of a self-report coping measu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1), 47-59.
- Compas, B. E., Conn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 Derryberry, D., Reed, M. A., & Pilkenton-Taylor, C. (2003). Temperament and coping: Advantages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4), 1049-1066.
- Diprete, T. A., & Jennings, J. L. (2012). Social and behavioral skills and the gender gap in early educational achievement. *Social Science Research*, 41(1), 1-15.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 Guthrie, I. K. (1997). Coping with stress: The roles of regulation and development. In S. A. Wolchik, & I. Sandler (Eds.), *Handbook of children's coping: Linking theory and intervention* (pp. 41-70). New York: Plenum.
- Eisenberg, N., Zhou, Q., Spinrad, T. L., Valiente, C., Fabes, R. A., & Liew, J. (2005). Relations among positive parenting,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externalizing proble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6(5), 1055-1071.
- Frey, K. S., Hirschstein, M. K., & Guzzo, B. A.

- (2000). Second step: Preventing aggression by promoting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8(2), 102-112.
- Geng, F., Hu, Y., Wang, Y., & Chen, F. (2011). Two types of behavioral inhibition: Relations to effortful control and attention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6), 662-669.
- Gresham, F. M. (1998). Social skills training with children: Social learning and applied behavioral analytic approaches. In T. S. Watson, & F. M. Gresham (Eds.), *Handbook of child behavior therapy* (pp. 475-497). New York: Plenum.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Kochenderfer-Ladd, B., & Skinner, K. (2002). Children's coping strategie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267-278.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Lengua, L. J., & Long, A. C. (2002).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self-regulation in the appraisal-coping process: Tests of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4), 471-493.
- Matud, M. P. (2003).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uris, P., van der Pennen, E., Sigmond, R., & Mayer, B. (2008). Symptoms of anxiety,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non-clinical children: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 and performance-based measures of attention and effortful control.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39(4), 455-467.
- Peugh, J. L., & Enders, C. K. (2004). Missing data in educational research: A review of reporting practic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4), 525-556.
- Rothbart, M. K., & Posner, M. I. (2006). Temperament, attention,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Developmental Neuroscience* (2nd ed., pp. 465-501). New York: Wiley.
- Sandstrom, M. J. (2004). Pitfalls of the peer world: How children cope with common rejection experienc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1), 67-81.
- Schreiber, J. B., Nora, A., Stage, F. K., Barlow, E. A., & King, J. (2006).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confirmatory factor

- analysis results: A review.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9(6), 323-338.
- Segrin, C. (2000). Social skills deficits associated with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379-403.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74-488.
- Spinrad, T., Eisenberg, N., Cumberland, A., Fabes, R. A., Valiente, C., Shepard, S. A., Reiser, M., Losoya, S. H., & Guthrie, I. K. (2006). Relation of emotion-related regulation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 longitudinal study. *Emotion*, 6(3), 498-510.
- Verstraeten, K., Vasey, M. W., Raes, F., & Bijttebier, P. (2009). Temperament and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ion by rumination and moderation by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3), 349-361.
- Wei, M., Ku, T.-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H. (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5(4), 451-462.
- Zhou, Q., Hofer, C., Eisenberg, N., Reiser, M., Spinrad, T. L., & Fabes, R. A. (2007).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ttention focusing, attentional and behavioral persist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school-age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369.

1 차원고접수 : 2017.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7. 08. 12.

최종게재결정 : 2017. 08. 23.

Longitudinal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School Age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kills and Coping Strategies for Stress and Gender Differences

Kim, Jaehee¹⁾

Kim, Hyoun. K.²⁾

¹⁾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²⁾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nfluenced their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two years late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social skills and nega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Additionally,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in these mediating paths were examined. A community sample of children 397(213 girls) and their par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at fourth grade (Time 1, $M = 10.43$ years) and was followed at 6th grade (Time 2, $M = 12.38$ years).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in Mplus 7.4. Findings indicated that children's effortful control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positive social skills, which in turn led to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two years later. In addition, children's lower levels of effortful control predicted their nega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which subsequently led to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boys' lower levels of effortful control and higher levels of nega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were directly associated with aggressive behaviors and indirec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through social skills deficits. On the other hand, direct effects of effortful control on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were not significant for girls. Instead, their social skills directly predicted depression and aggressive behaviors. Further, girls' lower levels of effortful control were significantly predictive of aggressive behaviors mediated through high levels of negative stress coping strategies. These findings can inform efforts to develop gender specific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to prevent problem behaviors in school age children.

Keywords: effortful control, social skills, coping strategies for stres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gender difference